


비영리활동과 예술영역의 교집합 찾기 (1회)

주제 : 지역과 문화사업 그리고 청년들의 마을살이



‘비영리활동과 예술영역의 교집합 찾기 1회차 모임’에서는 지속가능한 예술을 영리적인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한 이야기, 그중 지역문화기반의 예술과 청년들의 문제를 연결하여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예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언제나 의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술을 대중화하고 삶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지역문화와의 융합을 통한 자연스러운 예술 접근성 향상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5년차인 지금도 사업성과는 가시적이지 못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의 토론 주제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문화사업들도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사업 또는 무화공동체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꿈을 펼칠 기회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업화됨에 따른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고유성과 동떨어진 문화사업들이 펼쳐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과 문화사업 그리고 청년들의 마을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1. 지역 문화는 존재하는가?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해당 지역의 문화사업일까요?
우선 지역문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지역 문화 :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것.

한마디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레, 품앗이등이 대표적이죠. 예전 농경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것이 굳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는 희미해지고 대중문화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문화는 유행이 중심이라 단발성이며 지역적인 특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문화가 없는 것일까요?

의견 1 :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는 망원동에서 축제를 해도 어르신들만 모인다. 축제나 행사가 대부분 행정동중심. 지역문화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니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닐까? 농촌 사회에서는 주민이 소비자이자 생산자였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리됨. 그래서 주체가 애매해짐.

의견 2 : 사는 곳은 강북구 수요, 일하는 곳은 동작구, 마음이 있는 곳은 성북구, 이렇게 나뉘어져있으니 참여가 어려움. 즉, 생활권의 문제라고 생각함. 동작구에서 중심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대부분 출퇴근을 거의 근거리안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이들은 사는 곳, 일하는 곳, 노는 곳이 같지 않기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은게 아닌가.

그렇다면 왜 지역문화가 없는 것일까요?


의견 3 : 의견2에서 언급된 것 처럼, 나도 생활권에 따라 정체성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즉, 생활권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는 정체성이 뚜렷해지기 힘들다. 그럼에도 지역문화는 고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는 시대가 바뀔 때 따라 ‘지역’이라는 단어자체를 재정의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생활권 개념이 사라지며 지역문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다들 크게 공감하였다.

2. 문화사업과 지역의 상생은 가능한 것인가?

예술, 문화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이 있는 분들보다 덜 제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들의 생활권, 그리고 지역문화사업간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지속적인 지역문화사업이 가능하고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라는 것 자체가 희미해져가고 있기때문에 어떤 것이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가지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의견이 지역의 대학을 유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 이었습니다.

과연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과 그 주변지역을 생활권으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들어보았을때,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학교주변을 중심 생활권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홍수만 강사님은 영국 셰필드의 문화재생도시산업을 모델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모델이라 하셨는데, 이는 결국 주민들이 의기의식을 느꼈을 때 가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공감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을 나누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작기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지역문화사업과 청년들의 접점은?

그렇다면 지역문화 사업과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은 **강북청년자립협동조합 ‘괜찮은 음악학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음악학원이 별로 없는 강북구를 기반으로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청년들이 위주가 되어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민간학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속 음악 플랫폼, 마을의 청년 뮤지션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양질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수익금의 50%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지역문화사업과 청년들의 접점으로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홍대의 '프린지 페스티벌'도 역시 지역문화와 청년들과의 접점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린지 페스티벌은 홍대를 중심으로 10년을 했지만, 정책의 변화에 의해 단 한번에 쇠락해버린 안타까운 예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람들과의 연대가 부족했고, 행정적인 정책변화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4. 결론

특별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역문화사업과 청년들이 모두 엮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부분 부분에 더 고민을 해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